

『곤자쿠모노가타리(今昔物語集)』의 여인왕생담 고찰

김지영*

soyokaze99@hanmail.net

차례

1. 머리말
2. 왕생인의 종류
3. 『곤자쿠』의 두가지 상반된 여성이미지
4. 결론

요지

『今昔物語集』は仏教説話集として、仏教が民衆の教化の方法として興味ある話を通じて仏の本当の姿を心の中で形造って信じるようにするため生まれたのである。記紀にうかがわれるように、男女の交わりにいささかの罪悪感をも覚えることのなかったように見える日本に、仏教は男女隔離の風習、すなわち、僧侶が女人に近づくのを禁ずる戒律などをもたらした。仏教には、男女を平等とする考えがないとはいききれないが、概して、女は罪業ふかく、成仏しがたいと考えられている。

本稿では、このような仏教の伝統的女性観を『今昔物語集』の編者はどのように理解して伝えているかについて考察して見ようとする。特に、仏教の修行生活における窮極的な目標だといえる往生を女はどんな形で成し遂げているのかに分析の焦点をあてて考察して見ようとする。

女人往生とは、女でも成仏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世の中の女性たちに希望を与えている説である。『今昔物語集』の女人往生談は本朝の仏法部の第15巻に12話、第17巻に1話、第19巻に2話が載せられている。特に、第15巻は往生談としてその話の題目を見ると、例えば「小松天皇御孫尼往生語第三十六」のように誰々かが往生した話であるという形になっている。そのような話が54話である。54話の中で第1話から第35話までは聖人、比丘、沙弥の往生談、次は比丘尼の往生談、貴族の男性の往生談、貴族の女性及び金持ちの女性、寺の賤童の順序で整然と往生人を列記している。その順序が編者の尊敬する人物からなっているので構成面での特徴も注目される。また、編者の総合的な往生談として構成しようとしたのが把握される。

女人往生談で特徴的な面は、母が息子を僧として教育させるという仏道の案内者の役割である。この点は他の部分で仏道の邪魔物としてみるのと対照的である。編者は女でも往生できると微かな希望を女に与えながら、一方では女の存在そのものが罪になるから男は女に触れてはいけないと戒めている。

키워드 : 여인, 여성, 『今昔物語集』, 왕생담

1. 머리말

『곤자쿠모노가타리슈(今昔物語集)』¹⁾(이하 『곤자쿠』로 약칭함)의 왕생담은 15권의 왕생설화 52화를 중심으로 각권에 합계 109화가 있다. 그 가운데 여인왕생담은 本朝(일본) 불법부에 속하는 제15권에 12화, 제17권에 1화, 19권에 2화가 수록되어 있다. 제15권은 왕생담으로 제목을 보면 예를 들어 「小松天皇御孫尼往生語第三十六」과 같이 누구누구가 왕성한 이야기라는 형식이 주를 이루어 54화가 있다. 그 가운데 제1화에서 제35화까지는 성인, 스님의 왕생담, 다음이 여승(尼)의 왕생담, 속인 남자의 왕생담, 속인 여자의 왕생담, 스님의 시종의 왕생담의 순서로 되어 있다. 편자가 종합적인 왕생담으로 구성하려 했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순서가 존경하는 사람에서 남, 여, 시종까지 존경도와 신분의 순서로 되어 있어, 구성면에서의 특징도 주목할 만 하다. 하지만 이는 곤자쿠 15권 50여화 일련의 설화는 왕생전 설화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그 대부분이 『日本往生極樂記』(37화), 『日本法華験記』(15화)에서 인용되거나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우선 往生을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의 목숨이 끝나서 다른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정토사상의 발전에 의해, 이 예토를 떠나서 저 정토에 태어나는 것을 말하게 되었다”²⁾라 풀이되고 있다. 불교의 정토에는 아미타, 미륵, 화엄, 약사 등의 정토가 있다. 『곤자쿠』의 정토신앙은 주로 아미타정토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여인왕생이란 여성이 비록 오장삼종의 신분이긴 하나 수행을 하면 남성과 마찬가지로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진 말이다. 그러나 이 여인왕생에는 조건이 붙어있었다. 그것은 여성이 여성인 채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며, 왕생 직전에 남성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우선 만족시켜야 여성도 비로소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童女成仏사상³⁾이다.

용녀성불이란 법화경 5권의 提婆達多品 12면에서 이야기하는 사갈라용왕의 8살되는 딸이 문수보살의 교화로 석가 앞에서 남자로 변신해 성불했다고 하는 것으로서, 이것으로 여성도 왕생이 가능하다는 증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여자의 몸으로는 성불

1) 본문 인용은 馬淵和夫等 校注・訳、『今昔物語集』, 日本古典文学全集、小学館 1980에 의함. 이하 같음.

2) 中村元外 3人, 岩波仏教辞典、岩波書店、1989.12

3) 田中貴子, 「古典文学にみる童女成仏」 「国文学解釈と鑑賞」 720号, 至文堂, 1991. 5

할 수 없고, 남자가 되어야 비로소 성불할 수 있다는 이 용녀성불의 논리에서 남성중심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곤자쿠』에는 왕생담만을 모아놓은 15권 전체 54개의 왕생담 중 여인왕생에 관한 것이 12개에 달한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남성 위주의 전통불교 풍조 속에서, 『곤자쿠』가 이처럼 적지않은 분량을 할애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구제의 가능성을 귀띔해주어 희망을 안겨주려는 편자의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구제의 가능성의 가장 좋은 예로서 보여지는 여인왕생담, 그리고 그와 상반된 열등한 존재로서의 여성에 대한 예를 비교 대조하여, 편자는 어떻게 이를 조화시켜 여성들에게 보다 설득력있는 메시지를 던지려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여인왕생담을 왕생인의 신분, 수행방법, 왕생의 증거에 따라 내용고찰을 통해 좀더 살펴본 연후에, 15권 이외의 본조부(本朝部)의 여성에 관련된 부분에 보이는 보다 구체적인 여성에 관련된 이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왕생인의 종류

15권의 왕생인들의 왕생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a. 어려서 入山
- b. 출가
- c. 행업(行業)
- d. 노년이 되어 瑞相으로 죽음의 시기를 예고
- e. 죽음의 준비
- f. 죽음
- g. 사후의 기이에 의해 왕생확인

위와 같은 단계로 이어지는데 이 가운데 명승이나 고승의 왕생담은 그 태몽에서부터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여인왕생담의 경우, a는 당시 여인결계라 하여 유명한 산에 입산이 금지되고 있었던 상황이라 불가능했었다. 따라서 간략한 신분 설명과 더불어 출가 또는 출가시점부터 이야기되어지고 있다. 행업 부분에 있어 절의 대소사의 중요한 역할이라든가 학승으로 유명하다든가 하는 설명이 없어, 여승은 소극적이고

조용한 수행과 더불어 주변적인 역할에 머물렀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순서에 따라 여승, 일반여성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2.1 여승

출가한 여승의 왕생담은 『곤자쿠』 제15권 36화, 37화, 38화, 39화, 40화, 41화 등에 기술되어 있다. 여인왕생담 제15권 총12화 가운데 6화를 차지한다. 제목을 보면, 36화는 小松天皇御孫尼往生語第三十六으로 누구누구의 자손, 39화는 源信僧都母尼往生第三十九로 누구누구스님의 어머니, 41화는 鎮西筑前国流浪尼往生語第四十一로 어느 지방을 떠도는 여승이라 되어 있다. 비구의 경우는 어느 절의 어느 스님이라고 본인의 범명을 제목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비하면 상당히 대조적인 데가 있다. 39화를 빼면 귀족출신이거나 부유한 계층의 출신의 여성들이 출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여승의 출가의 계기를 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세상의 무상함을 직시하여 불도에 귀의할 것을 발심(發心)하는 경우이고, 또다른 하나는 천성적으로 불도수행에 적합한 마음을 타고 나서 바람직한 수행의 길을 자연발생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경우이다.

다음의 예는 제15권 36화의 이야기인데, 앞의 두 예 중 전자의 경우에 속한다. 이다.

小松天皇(光孝天皇)의 손이 되는 분이 니가 되었다. 젊을 때 □라는 사람에게 시집가서 3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들은 어려서 계속 죽어버렸다. 어머니는 너무나 비탄에 잠겨 있었는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죽어, 무상한 세상이 슬프고 싫어져 과부생활하며 재혼도 할 맘이 없었다. 그런 연후에 무언가에 의해서 계속 도심이 생겨 결국 바로 출가해서 여승이 되었다. 오로지 아미타염불만하여 도무지 다른 어떤 생각도 품지 않았다.

(小松ノ天皇ノ御孫ニテ尼有ケリ。若クシテ□□ト云フ人ニ嫁テ、三人ノ子ヲ産セリ。其ノ子供、幼クシテ皆打次キ失ニケリ。母此レヲ嘆キ悲ムト云ヘドモ、甲斐無クシテ過問ニ、其ノ後幾ノ程ヲ不經ズシテ、亦其ノ夫失ニケレバ、世ノ無常ナル事ヲ厭テ過ルニ、寡ニシテ人ニ近付ク事無カリケリ。而ル後、念念ニ道心發ニケレバ、遂ニ速出家シテ尼ト成ヌ。其ノ後、偏ニ弥陀ノ念仏ヲ唱ヘテ、更ニ余思モ無シ。)4)

위의 예에서 보듯이 결혼해서 남편도, 아이도 있었으나 모두 죽고 무상한 세상이 싫어져 출가하게 된 경우이다.

다음은 한번도 결혼을 하지 않고 출가하는 경우로 제15권 37화의 이야기인데, 앞의 두 예 중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

이 여승은 온화한 마음의 소유자로 제멋대로나 함부로 행동이나 사악한 마음은 전혀 없었다. 또, 일생동안 독신으로 결혼한 적이 없으며, 항상 현세를 싫어하며 후세의 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결국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었다

(其ノ尼心柔栗ニシテ、永ク放逸邪見ヲ離レタリ。亦、一生ノ間寡ニシテ、男嫁ク事無カリケリ。常ニ世ヲ厭テ後世ノ事ヲ心ニ懸ク。遂ニ髮ヲ剃テ尼ト成ヌ。)

위 인용문의 예는 천성이 이미 불가수행자에 적합하며, 그 마음 또한 바람직한 불가의 길을 걷기에 적합하도록 천부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예는 38화, 41화에 이어서 나타나며, 본인도 출가를 하지만 그 아들까지 중으로 출가시키는 예도 39화, 40화에서 볼 수 있다.

여성들의 출가는 위의 예문들에서 보듯이, 세상이 무상해져서 하는 경우, 천부적으로 불도수행의 길에 합치되는 마음을 타고나 자연발생적으로 이상적 불도수행의 길을 걷는 경우의 둘로 나눌 수 있다. 특히 후자의 천부적인 경우를 나중으로 돌리고, 결혼이나 출산 등의 세상의 고뇌를 겪을 대로 겪고 출가하는 경우를 앞 쪽에 배치하여 편집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편자 나름의 의도가 작용되어 있지 않나 싶어 주목된다.

2.1.1 수행방법

여승의 경우 수행은 어떠한 형태로 하고 있는가는 제15권 38화의 예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다.

출가해서 여승이 되고 부터는 오로지 미타염불을 외워 극락에 왕생을 기원하며 세월을 보내었다. 여승은 전부터 자신의 손의 껍질을 벗겨서 극락정토의 상을 그려 바치

려고 깊이 마음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자신 스스로 벗길 수 없어 헛되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에 한 미지의 중이 와서 여승을 향해, 「당신의 열성적인 뜻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 제가 당신의 손의 껍질을 벗겨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 여승은 이것을 듣고, 기뻐서 벗기게 했다. 중은 곧 벗겨내었지만 벗겨내자마자 사라져 없어져 버렸다. 그후 여승은 극락정토의 상을 염원대로 그려바쳐 그것을 한시도 몸에서 떼지 않고 지니며 받들었다

(此ノ尼本ヨリ道心有ケレバ、出家シテ尼ト成テ、偏ニ弥陀ノ念仏ヲ唱ヘテ、極樂淨土ノ相ヲ図シ奉ラムト思フ心懃也ケルニ、自ラ此レヲ剥グ事不能ズシテ過ル間、一ノ不知ヌ僧出來テ、尼ニ向テ云ク、「我レ汝ガ懃ノ志ヲ遂ゲムガ為ニ、汝ガ手ノ皮ヲ剥ガム」ト。尼此レヲ聞テ、喜ビ此レヲ令剥ム。僧 即チ此レヲ剥ギ畢テ後、忽ニ失ヌ。其ノ後、尼極樂淨土ノ相ヲ、心ノ願ヒ如ク写シ奉テ、一時モ身ヲ不離ズ持シ奉レリ。)5)

위의 예에서 보듯 미타염불 수행을 주로 하고 그 이외의 자신만의 독특한 수행을 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예는 제15권 제40화에서도 미타염불과 계율을 엄격히 지키고 몸을 청결히 하는 수행을 하고 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여승들의 수행은 미타염불만을 의지하고 있다. 그 미타염불만을 하는 수행방법 가운데서도 조금 특이한 경우는 다음의 제15권 제41화의 예이다.

이 여승은 항상 미타의 염불을 외우고 있었다. 그것도 조용히 작은 소리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소리로 그 소리는 너무나 새된 소리로 마치 소리치는 것 같다.

(尼常ニ弥陀ノ念仏ヲ唱ヘケリ。忍テモ不唱ズシテ、此ク高声ニ、其ノ音極メテ高クシテ叫ブガ如也。)6)

위의 인용문의 예에서 여승은 너무나 큰 소리로 수행을 하여 이후에 다른 중과 제자들의 미움을 사서 기거하던 절에서 쫓겨나고 있다. 절에서 수행방법이 거슬러 상석스님과 제자들의 미움을 받아 쫓겨난다함은 절에서 그녀의 존재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였음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여승들은 절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든가 불교 행사를 담당하고

5) 텍스트 2권, p131

6) 텍스트 2권, p141

있는 경우는 없었다.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 오로지 스스로 어떠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이 통일되어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미타의 염불을 주로 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선근수행을 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소속된 절에 대한 이름이나 설명이 없다. 절에 기거를 하는 경우와 절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집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음⁷⁾을 알 수 있다.

2.1.2 노년의 죽음의 예고와 죽음의 준비

전심전력의 수행을 하는 가운데 어느덧 노후를 맞이한 여승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전에 그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 다음은 41화의 예이다.

어느날 여승이 주부를 불러, “나는 모래, 죽을 것입니다. 목욕재계해주지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어여뻐 여겨주셔서 기쁘게 생각되어 죽을 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하염없이 운다

(而ル間、尼家主女ヲ呼テ云ク、「己ハ、明後日ニ死候ヒナムトス。沐浴シ侍ラムヤ。年來哀レヒ給ヒツル事ノ喜ク侍レバ、『死ナム時ノ事見セ奉ラム』ト思フ也。此ノ事人語り不可給ズ」ト云、泣ク事無限シ。) ⁸⁾

위의 예와 같이 여승은 죽기 전에 가장 고마웠던 여주인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며 목욕재계를 부탁한다. 목욕을 부탁하는 것은 주부에게 선업을 쌓게 해주려는 결연의 하나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죽음을 예고 하고 다음은 그 죽음의 준비일 것이다.

죽는 본인은 죽기직전까지 전심전력으로 염불을 행하고 있는데 이 때 혼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래의 예화와 같이 더불어 여럿이 해주는 경우가 왕생인에게 좀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39화에서는 아들인 스님이 어머니인 여승의 임종시에 도착하여 왕생을 도와주는 이야기이다.

僧都가 “염불은 하시고 계십니까”라고 하자, “마음으로는 하려고 합니다만 기력도 없어진데다가 권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여승이 말한다. 그래서 僧都가 여러 가

7) 제15권 39화

8) 텍스트 2권, p141

지 귀한 것을 말씀하여 들려주어 염불을 진행하여 여승은 마음에서 도심을 일으켜 염불을 일일백번정도 외우고 있었는데 날이 밝을 무렵 꺼지듯 숨을 거두었다. 僧都는 “만약 내가 오지않았더라면 여승의 임종은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묘자의 인연은 깊어서 내가 와서 만나 염불을 진행하여 도심을 일으켜 염불을 외워 돌아가셨으므로 왕생은 의심할 수 없다. 더욱이 나를 성도로 권해주신 의지를 위해 이렇게 고귀한 최후를 맞이하셨다. 라고 하면, 부모는 아들에게 있어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 더할나위없이 뛰어난 불도예의 안내자였다”고 말하고 눈물을 흘리며 横川로 돌아가셨다.

(僧都ノ云ク、「念仏ハ申シ給ヘヤ」ト。尼君、「心ニハ申サムト思ヘドモ、力無キニ合セテ、勸ムル人ノ無キ也」ト云ヘバ、僧都貴キ事共ヲ聞セツ、念仏ヲムレバ、尼君懃ニ道心ヲ發シテ、念仏ヲ一ニ二百返許唱フル程ニ、曉方ニ成テ消入ル様ニテ失ヌレバ、僧都ノ云ク、「我レ、不來ザラマシカバ、尼君ノ臨終ハ此クハ無カラマシ。我レ祖子ノ機縁深クシテ、來り値テ、念仏ヲ勸メテ道心ヲ發シテ、念仏ヲ唱ヘテ失セ給ヒヌレバ、往生ハ疑ヒ無シ。況ヤ我レヲ聖ノ道ニ勸メ入レ給ヘル志ニ依テ、此ク終リハ貴クテ失給フ也。然レバ、祖ハ子ノ為、子ハ祖ノ為ニ無限カリケル善知識カナ」ト云テゾ、僧都涙ヲ流シテ横川ニハ返タリケル。)⁹⁾

위의 예문을 보면 죽기 직전의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가 왕생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아들인 스님이 같이 염불을 진행하여 죽어가는 여승의 도심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왕생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서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37화의 경우는 오빠인 僧都和 고승들의 도움을 얻고 있다.

2.1.3 죽음과 왕생의 징조

죽음에 임박해서 상서로운 징조들이 나타난다. 어떤 징조인지 다음의 36화의 경우를 보자.

허공에서 묘한 음악소리가 들려왔다. 마을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듣고 놀라 이상히 여기는데, 여승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아미타여래님이 지금 여기에 오셔서 나를 맞이하러 온 것입니다. 나는 방금 영구히 이 사바세계에서 떠나 극락에 왕생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고, 서쪽을 향해서 숨을 거두었다. 이를 들은 사람 모두 존경해마지 않았다.

9) 텍스트 2권, p133

(空ノ中ニ微妙ノ音楽ノ音有リ。隣リ里ノ人此レヲ聞テ驚キ怪フ間、尼傍ニ有ル人ニ告テ云ク、「阿弥陀如来今来リ給テ、我レヲ迎へ給フ。我レ只今永ク此ノ土ヲ去テ、極樂ニ往生シナムトス」ト云テ、西ニ向テ失ニケリ。) 10)

허공 또는 하늘에서 음악소리가 들려오고 아미타여래의 마중이 있었다. 다음의 37화의 예를 보자.

그 때, 여승은 또 僧都를 불러, “방금, 서쪽에서 대단히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된 마차가 날라와서 저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더럽고 탁한 곳이므로 불보살은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알렸다. 僧都는 이것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한없이 운다. 여승도 또 울며 기쁨에 차서 우러렀다. 그래서 僧都는 흐느껴울며 두 번에 걸쳐 경문을 소리높여 외쳤다. 다음날, 또 여승은 僧都를 불러, “바로지금, 보살과 여러 보살이 여기에 오셨습니다. 저의 왕생의 때가 온 것 입니다”라고 알리고 조용히 휘장의 그늘에 숨어 앉아 염불을 외우며 숨을 거두었다.

(其ノ時ニ、尼亦僧都ヲ呼テ、告テ云ク、「只今西方ヨリ微妙ノ宝ヲ以テ莊レル輿飛ビ来テ、我が眼前ニ有リ。但シ、此濁穢ナルニ依テ、仏菩薩ハ反リ去リ給ヒヌ」ト。明ル日、亦尼僧都ヲ呼ビ寄セリ。告テ云ク、「今ノ菩薩聖衆此ニ来リ給ヘル。我レ往生ノ時至レル也」ト云テ、隱居テ、念仏唱ヘテ 失ニケリ。) 11)

위의 예에서 서쪽에서 대단히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된 마차와 菩薩聖衆의 마중이 있다. 다음은 41화의 예이다.

그 가운데 밤이 되어 자, 축시정도가 되었을 무렵 집의 뒤꼍밭 가운데 지금까지 본 적없는 아름다운 빛이 갑자기 나타났다. 주부는 이것을 보고 놀라고 수상히여겨, “이것은 도대체 어떤일이지?”라며 보고 있자, 이번에는 사향의 향기등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상한 향기로운 향이 주위 전면에 가득했다. 하늘에서는 보라색구름이 내려와서 그 주변일대에 깔어넘쳐 자욱하게 끼어서 이것을 본 주부도 한결같이 염불을 외우고 있자 여승은 앉은 채 서쪽을 향해 합장을 하고 이마를 대고 숨을 거두었다. 주부는 세상에 드문 이렇게도 놀랄정도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격하여 우러러 예배하였다.

10) 텍스트 2권, p127

11) 텍스트 2권, p130

(夜ニ入テ、子丑ノ時許ニ成ヌラムト思フ程ニ、後ノ島ノ中ニ世ニ不知ズ微妙キ光
 俄ニ出来レバ、家女此レヲ見テ、驚キ怪テ、「此レハ何ナル事ゾ」ト思テ見居タレ
 バ、亦、麝香薰ナドニモ不似ズ奇異ニ馥バシキ香ヒ滿タリ。空ヨリ紫ノ雲其ノ辺ニ
 涌キ居テ見エケレバ、家女モ此レヲ見テ、念仏ヲ申入テ有ル程ニ、尼ハ居乍ラ西ニ
 向テ、掌ヲ合テ額ニ宛失ニケリ。)12)

위의 예문을 종합해보면 왕생의 징조로서 첫째,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아름다운 빛,
 둘째, 이상하면서도 향기로운 향, 셋째, 하늘과 그 주변일대에 자욱하게 끼는 보라색
 구름 넷째, 보살성중의 마중, 다섯째, 보석으로 장식된 마차, 여섯째, 하늘에서 들려오
 는 음악 등이 전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차되면서 나타나고 있다.

2.1.4 세간의 반응과 편자의 의견

다음으로 그 왕생을 목격하거나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왕생인이 왕생을 한 이후에
 나오고 마지막에는 편자의 의견이 실려있다. 이를 통해서 그 왕생담은 목격되고 소문
 으로 퍼져가게 되는 것이다. 다음 38화를 보면,

존귀한 모습 그대로 죽었으므로 반드시 극락에 왕생했음에 틀림없고 이것을 들은
 사람은 모두 우러렀다. 자손인 眞頼도 왕생했고, 眞頼의 여동생도 또 왕생했다. 게다가
 이 일족에는 세명의 왕생인이 있다. 이것은 드물게 보이는 존귀한 일이라고 전하여
 져 오는 것이다

(終リ貴クテ失ヌレバ、必ズ極樂ニ往生シヌハ、聞ク人皆貴ビケリ。末孫ノ眞頼往
 生ス。眞頼ガ妹ノ女、亦往生シニケリ。然レバ、此ノ族ニ三人ノ往生ノ人有リ。此
 レ難有ク貴キ事也、トナム語り伝ヘタルトヤ。)13)

다음 41화를 보면,

마음을 담아서 원한다면 결국은 왕생하는 일도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 이야기를 듣
 는 사람은 모두 감격하고 우러렀다.

(「遂ニ、願バ往生スル事モ有ナム」トゾ思ユル。此レヲ聞ク人皆悲ヒ貴ビケリ。)14)

12) 텍스트 2권, p143

13) 텍스트 2권, p132

이런 연유로 왕생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모두 자신의 죽음을 예지하고 이렇게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모두 발심하여 염불을 외워 극락왕생을 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전하여져 오는 것이다.

이상 위 예문을 종합하여 보면, 보거나 듣는 모든 이는 이를 존귀한 모습으로 우려르고 있다. 또한 극락왕생했음에 틀림없다고 확신하고 그 왕생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다. 이는 드물고 귀한 일로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은 발심하여 염불을 외워 극락왕생을 염원하라고 편지는 끝에 당부하고 있다.

이상 여승의 출가에서 왕생에 이르기까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은 일반여성들의 왕생담을 보기로 하자.

2.2 일반여성의 왕생담

일반여성의 왕생담은 15권 48화에서 53화까지 6화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그 제목을 살펴보면, 48화는 近江守彦真妻伴氏往生語第四十八의 예와 같이 누구누구의 아내, 50화는 女藤原氏往生語第五十의 예와 같이 누구누구씨인 여자, 마지막으로 53화의 近江国坂田郡女往生語五十三의 예와 같이 어느 마을의 여자 등의 세 종류로 표기하고 있다.

이들은 신분상으로는 귀족, 부유한 계층의 출신이다. 이들은 출가는 하지 않았지만 일상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 그들의 성정은 다음과 같다.

2.2.1 재속수행자의 성정

그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한가를 보면 출가만 하지 않았지 여승과 다름없이 천성적으로 불교수행자의 길로 자연스레 걷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예를 보면 49화에서,

이 여자는 어렸을 때부터 인과의 도리를 알아 불법을 믿고 도심이 있었다. 드디어 그 佐佐에게 시집가서 몇 년이 지났지만 도심은 쇠하지 않고 염불, 독경도 게을리한 적이 없었다.

(其ノ女幼ノ時ヨリ因果ヲ知テ、仏法ヲ信ジテ道心有ケリ。而ル間、彼ノ佐世ニ嫁
テ年来ヲ経ルニ、道心不退ズシテ、念仏読經不怠ズ。)15)

다음의 50화에서는,

이 여자는 천성이 온화한 마음씨의 소유주로 자비심깊고 항상 극락왕생을 마음에
새겨 주야 염불을 외워 게을리한 적이 없었다.

(此ノ女本ヨリ心柔軟ニシテ慈悲有ケリ。常ニ極樂ニ心ヲ懸テ、日夜ニ念仏ヲ唱へ
テ、怠ル事無カリケリ。)16)

이상과 같이 그들은 도심이 있거나, 인과의 도리를 알고 천성이 온화하며 자비심
이 깊은 것이 공통적으로 가진 성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이 수행자의 모습에
가장 적절하다 여기는 편자의 의도를 가진 복선의 한 형태라 볼 수 있겠다.

이들의 수행의 모습을 보면 다음과 같다.

2.2.2 수행

결혼을 한 경우와 설명이 불분명하거나 결혼하였지만 노년에 홀로된 과부로 나눌
수 있다. 결혼을 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아닌 결보기만의 결혼생활과 모든
결혼생활은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의 수행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48화는 결혼을 하였지만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아닌 결보기만의 결혼생활의
예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런중에 이여자는 彦真과 부부가 되어 깊은 애정으로 맺어져 있었지만, 남편과 같
은 침대에 자지 않고 그 몸에 접촉하는 일도 없이 항상 몸을 정갈히 유지하여 염불을
외우고 있었다. 어느날, 여자는 胎藏界의 만다라의 어전에 앉아 남편을 불러, 「오랫동
안 당신과 부부의 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같은 침대에는 자지 않고 몸에 접촉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때문에 나는 당신과 같은 곳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집을 한 채 주십시오. 별도로 살아서 그 죄를 벗어나고 싶습니

15) 텍스트 2권, p163

16) 텍스트 2권, p164

다」라고 한다. 거기서 남편은 아내가 말하는 것을 승낙했다. 아내는 「나는 오랫동안 미타의 염불을 외워 오로지 극락으로 왕생하려 했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 헤아려보니 작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붕어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 있는 붕어가 두 마리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불쌍히 생각해 우물에 넣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붕어는 꼭 좁은 우물에 언제까지나 있을 수 없어 넓은 곳에 살고 싶다고 슬퍼했죠. 만약 이 붕어를 슬프게한 죄가 왕생의 방해가 되는 것일까요?」라고 한다. 남편은 이를 듣고 곧 우물에 사람을 내려보내 밑을 찾아보게 하여 두 마리의 붕어를 잡아 넓은 후미에 가지고 가서 거기에 풀어주었다.

(而ル間、此ノ女彦真ト夫妻ト成テ、其ノ契リ深シト云ヘドモ、同ジ床ニ不臥ズシテ触バヒ近付ク事無シ。常ニ身ヲ淨クシテ念仏ヲ唱フ。而ル間、女胎藏界ノ曼陀羅ノ御前ニ居テ、夫彦真ヲ呼テ語テ云ク、「我レ年来汝ト夫婦ノ契リ有リト云ヘドモ、同ジ床ニ不臥ズシテ、触バヒ近付ク事無シ。然レドモ、定メテ其ノ罪無キニ非ジ。然レバ我レ汝ト同所ニ不居ジ。一家ヲ我レニ与ヘヨ」ト、「別ニ居テ、其ノ罪ヲ遁レム」ト。然レバ、彦真妻ノ云フニ随テ、其ノ事ヲ受ツ。妻亦云ハク、「我レ年来弥陀ノ念仏ヲ唱ヘテ、懃ニ極樂ニ往生セムト為ルニ、聊ノ滯リ有リ。此レヲ量ラフに、先年二人有テ我レニ鮒ヲ数令得タリキ。其ノ中ニ生タル鮒二ツ有リキ。我レ其レヲ哀レムデ、取テ井ノ中ニ入レテキ。而ルニ、彼ノ鮒定メテ狭キ所ニ久ク有テ、『広キ所ニ有ラム』ト悲ラム。若シ其ノ罪ノ故ニ滯ルカ」ト。彦真此レヲ聞テ、忽ニ井ニ人ヲ下シテ、底ニ搜リ令求テ、二ノ鮒ヲ取テ広キ江ニ持行テ令放ツ。)¹⁷⁾

위의 예를 보면, 오로지 이 여자가 하는 일은 조용히 염불을 외우는 일이므로 여타 집안일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수행을 옆에서 도와주는 남편의 내조가 돋보인다. 오랫동안 부부로 살면서도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고 아내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형식적인 부부로 지내면서 수행에 게을리 하지 않는 여자에게 왕생의 장애가 있다. 이는 생물 즉 붕어를 슬프게 하였다는 미미한 죄이다. 이러한 사소한 죄가 왕생을 방해했고 이를 제거하자 아내는 다음 단계로 왕생을 이루고 있다. 오랜 선행도 사소하고 미미한 악행으로 왕생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말은 얼마만큼 왕생이 힘든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49화를 보자. 이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수행을 겸하는 경우이다. 여자 주인공에게는 오빠로 한 스님이 있었다. 이름을 延教라 하였다. 그에게 불도를 공부

17) 텍스트 2권, p160

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延教은 이것을 듣고 가여이 여겨, 관무량수경 및 제경전의 가운데 있는 극락왕생에 관한 중요한 문구를 발취하여 여자에게 가르쳐주었다. 여자는 이것을 습득하고 주야 자면서도 깨어서도 마음에 새겨 잊은 일이 없었다. 또, 매월, 15일 저녁무렵에는 반드시 전신을 땅에 던지고 서쪽으로 향해 예배하고 “남무서방일상안양정토아미타불”라고 외쳤다. 이것을 일상의 일로 하고 있었는데, 부모가 이것을 알고 제지하고 “젊은 딸이 결코 이러한 수행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것은 모습을 망가뜨리는 근원이다”라고 말하고 무리하게 그만두게 하려고 했지만 여자는 그만두지 않았다.

(延教此レヲ聞テ、觀無量壽經及ヒ諸經ノ中ニ極樂ノ要文ヲ書キ出シテ、女ニ教フ。女此レヲ習ヒ悟テ、日夜寤寐ニ念ジテ、忘ル、事無カリケリ。亦、毎月ノ十五日ノ黃眠ノ時ニ至テハ、必ズ五體ヲ地ニ投テ、西ニ向テ禮拜シテ、「南無西方日想安養淨土彌陀仏」ト唱フ。)18)

觀無量壽經과 여러 경전 중에 극락에 관한 중요한 문구만을 발취하여 여자는 오로지 주야로 그것을 염불하고 있다. 불교지식도 없고 마음만 있었던 여동생에게 스님인 오빠의 지도로 염불을 외울 수 있었고 거기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매월 15일 저녁에는 전신을 땅에 던지고 서쪽을 향해 예배하고 「南無西方日想安養淨土彌陀仏」이라 외치고 있다.

51화를 보면 伊勢国飯高郡에 한 노파의 이야기로 다음과 같다.

도심이 있어, 한달의 15일은 불사를 행하고 나중 15일은 세간 일을 하고 있었다. 그 불사의 근무하는 방법은 언제나 향을 사서는 그 군내의 모든 절에 가지고 가서 부처에게 공양드린다. 또, 춘추에 따라 들로 산으로 가서 계절의 꽃을 꺾어 그 향에 더해 부처에게 공양드린다. 또, 쌀, 소금 및 과일 기타 여러 야채등을 곁들여 그 군내의 모든 스님에게 공양하는 식이었다.

(道心有テ、月ノ上十五日ニハ仏事ヲ修シテ、下十五日ニハ世路ヲ營ケリ。其ノ仏事ヲ勤ケル様ニ、常ニ香ヲ買キ。其ノ郡ノ内ノ諸ノ寺ニ持參テ、仏ニ供養シ奉ケリ。亦、春秋ニ隨テ、野ニ出テ山ニ行テ、時ノ花ヲ折テ、其ノ香ニ加ヘテ、仏ニ供養シ奉ケリ。亦、米塩及ビ菓子菜等ヲ調ヘテ、其ノ郡ノ内ノ諸僧ニ供養シケリ。)19)

18) 텍스트 2권, p163

결혼생활을 한 연후에 자손까지 두고 노년에 이르러 불사를 행하고 있는 노파의 이야기이다. 한달의 15일을 삼보공양을 지극정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 공양은 돈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일 것이다. 이외에 52화에서는 집안에 연못까지 있는 부유한 집의 부인이 말년에 극락왕생을 염원하며 연꽃공양을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재속수행녀들의 행업으로는 미타의 염불수행과 재물공양을 드리고 있다. 여승들이 미타염불 수행과 자기만의 선근수행을 쌓고 있는데 비해 재속수행녀들은 미타염불수행을 하지 않고 재물공양만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미타염불 수행 또는 재물공양은 시간과 돈이 있어 여유로운 사람들에게 가능한 수행이고, 이것이 불가능한 생계를 위해 일해야만하는 하층민의 여성들에게는 극락왕생도 꿈같은 이야기였을 것이다. 그런 연유에서 인지 하층민 출신의 여성의 왕생담은 보이지 않고 있다.

2.2.3. 죽음의 예고와 왕생의 징조

15권 48화에서 53화에 이르기까지 속인 여자의 왕생담 총 6화 가운데 죽음의 예고를 보이는 것은 50화 한 예로, 藤原氏인 여자의 이야기이다.

드디어, 어언 세월도 쌓여 노경에 접어들었는데, 어느 때 어떤 사람을 향해, 「나는 오랫동안 극락에 태어나고 싶다고 원해서 주야 염불을 외우길 계속했는데 지금 아득한 곳에서 음악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왕생하는 증거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한다. 그는 이것을 듣고 존경스럽게 생각했지만, 그 다음해, 여자가 또, 「작년 들었던 음악소리가 조금더 가까워서 들렸습니다. 이것은 나의 왕생의 때가 가까워왔기 때문일까요?」라고 한다. 다음해, “전에 들었던 음악소리가 해를 쫓아서 가까이 왔습니다. 도리어 최근에는 나의 침실위에서 들려옵니다. 지금 왕생의 때가 왔습니다」라고 하고, 한층 게을리하는 일 없이 염불을 외운다. 드디어 여자는 병에도 걸리지 않고 고통도 없이 존경스런 최후를 맞았다.

(「我レ年来、『極樂ニ生レム』ト願テ、昼夜ニ念仏ヲ唱ツルニ、今遥ニ微妙キ音楽ノ音ヲ聞ク。此レ可往生キ相カト。人此ノ事ヲ聞テ貴ヒ思フ間、其ノ明ル年、亦云、「去年聞キシ音楽ノ音、今少シ近付ニタリ。此レ往生ノ期ノ近付ク故カト。亦、其ノ明ル年シ云ク、「前ノ音楽ノ音年ヲ追テ近付ク。就中ニ、近日寢屋ノ上ニ聞ク。今往生ノ時至レリ」ト云テ、弥ヨ念仏ヲ唱ヘテ怠ル事無シ。而ル間、女身ニ

病無ク、苦ブ所無クシテ終リ貴クシテ失ニケリ。)20)

죽음의 예고로 음악소리가 들리는데 삼년에 걸쳐 세 번 그 소리가 점점 왕생인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왕생의 징조의 경우를 보면 여승의 경우와 같이 여러 가지 현상이 한꺼번에 일어난다기 보다 그 가운데 한두가지 조출하게 일어나고 있다. 48화의 재속수행자의 왕생을 보자.

그 후, 여자는 숨을 거두려할 때, 연꽃 향기가 집안가득 차서 보라색의 구름이 자욱하게 끼어발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결국, 몸에 고통없이 서쪽을 향해서 염불을 외우면서 숨을 거두었다.

(其ノ後、女命終ル時ニ臨テ、蓮ノ香家内ニ滿テ、紫雲聳キ下テ、簾ノ内ニ入タリケリ。遂ニ女身ニ苦シブ所無クシテ、西ニ向テ念仏ヲ唱ヘテ失ニケリ。)21)

위의 예에서는 죽기 직전에 연꽃 향기, 보라색 구름과 더불어 왕생인은 염불을 외우면서 서쪽을 향해 숨을 거두고 있다. 특히 아무런 고통없이 죽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 49화에서는 하늘에서 묘한 음악소리가 나는 전조를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조금 남다른 왕생의 징조를 보이는 경우는 51화의 왕생이야기이다.

어느날 노파가 갑자기 병상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옷이 자연히 벗어떨어졌다. 간병하고 있는 자가 의아하게 생각해서 보니, 노파는 오른손에 한 연꽃을 가지고 이사. 꽃잎의 넓이는 7,8촌정도 광택은 선명하고 색은 실로 아름답고 향은 그윽하고 모든 것이 비할데없이 도저히 이 세상의 꽃이라 보이지 않는다. 간병의 무리가 이것을 보고 이상한 일이 라고 생각해 병자에게 향해 “그 손에 가지고 있는 꽃은 어디에 피어있었던 꽃입니까. 또 누가 가져와 준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병자는 “이 꽃은 간단히 보통사람이 가져와줄 수 있는 꽃이 아닙니다. 단지 극락정토에서 나를 맞으러 오신 보살님들이 가져와 주신 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을 들은 간병인들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러르는 중병인은 앓은 채 숨을 거두었다.

(嬭俄ニ起居ヌ。本着タリツル所ノ衣ハ自然ラ脱落ヌ。看病ノ者此レヲ怪ムテ見

20) 텍스트 2권, p164

21) 텍스트 2권, p161

レバ、姫右ノ手ニ一葉ノ蓮花ヲ持タリ。葩ノ広サ、七八寸許ニシテ、光リ鮮ヤカニ、色微妙クシテ、香馥バシキ事無限シ。更ニ此ノ花ト不見エヌ。看病ノ輩此レヲ見テ、「奇異也」ト思テ、看病者ニ問テ云ク、「其ノ持給ヘル花ハ何コニ有ツル花ゾ。亦、誰人ノ持來テ与ヘタルゾ」ト。病者答テ云ク、「此ノ花ハ、輒ク人持來テ得サスル花ニモ非ズ。只、我レヲ迎フル人ノ來テ与ヘタル也」ト。此レヲ聞ク看病ノ輩、「奇異也」ト思テ 貴ブ間、病者居乍ラ失ニケリ。)22)

위의 예문을 종합해 보면 연꽃 향기, 보라색 구름, 음악소리, 보살내영 등은 여승의 왕생의 전조와 일치하고 그 외의 경우로 왕생의 증거로 입고 있던 옷이 저절로 벗겨지면서 떨어지는 것과 아름답고 그윽한 향이 나는 이 세상의 꽃과 다른 꽃을 받은 예라 하겠다.

2.2.4 세간의 반응과 편자의 의견

왕생인들이 기적을 보인 연후에 세간의 평가는 여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격하고 우러른다. 49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것을 들은 인근의 사람들은 모두 “이여자가 극락으로 왕성한 징조다”라고 말하고 감격하고 우러르지 않는자가 없었다

(此レヲ聞ク隣り人、皆、「此ノ女ノ極樂ノ往生セル相ゾ」ト知テ、不悲貴ズト云フ事無カリケリ。)23)

세간의 평가와 더불어 편자는 당부를 하고 있다. 48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를 생각하면, 정말 조그만 죄라도 왕생의 방해가 되는 것이다. 더욱이 제멋대로 죄를 짓는 듯한 자가 왕생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단, 마지막에 진심을 담아 염불을 외워야만 한다고 전해져 오는 것이다

(此レヲ思フニ、然許ノ罪ニ依テ、往生ノ滞リト成ル。況也心ニ任セテ罪ヲ造レラム人ハ、往生極テ難有キ事ナレドモ、只最後ニ実ノ心ヲ至シテ念仏ヲ可唱キ也、トナム語リ伝ヘタルトヤ。)24)

22) 텍스트 2권, p166

23) 텍스트 2권, p163

왕생에 조금만 죄라도 방해가 된다고 하면서 마지막의 진심을 담은 염불을 강조하고 있다. 49화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왕생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예문을 종합해소 보면, 세간은 왕생의 존재를 확인하며 감격하고 우러르고 있다. 편자는 그가 제15권 왕생담 이외의 다른 곳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는 “여자라도(女也ト云ヘドモ)²⁵⁾가능하다”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왕생이 출가하지 않은 여자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극히 드문 예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자라도 출가하지 않아도 가능한 왕생이라는 것을 혹여나 쉽게 생각하지 않을까 사소한 죄라도 왕생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며 왕생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여인 왕생담을 정리하면 다음 네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출가한 여승과 재속수행자의 신분은 대개 귀족이나 부유층에서 나오고 있다. 수행내용이나 왕생의 내용은 크게 차이는 없으나 염불수행을 주력하면서 여타 자신만의 선근수행을 쌓고 있다. 재속수행자 가운데 염불 수행없이 재물공양만으로도 왕생하는 예가 있어 특이하였다. 귀족이나 부유층 이외의 하층민 왕생자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아직 불교의 왕생을 이루기 위한 시간과 돈을 가지지 못한 그들에게는 요원한 일이었던 듯하다.

둘째, 출가한 여승의 수행이 왕생의 전조가 좀더 다양하고 보살이나 성인의 내영이 동반되고 있다.

셋째, 모자간의 신앙과 서로 불도의 길로 안내하고 있는 모습은 다른 왕생담에는 볼 수 없을 만큼 특이하다.

넷째, 출가하였다고 하나 여승의 활동의 범위는 작고 작은 절 또는 집안에 머무르며 수행을 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개인적인 수행에 치중하며 그 수행의 방법이나 내용도 주변의 친인척인 스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출가를 하지 않았다고는 해도 그 수행내용이나 방법이 평범한 가정생활과 병립 가능한 내용과 아닌 경우가 뒤섞여 있다.

이 특징 가운데 세 번째의 모자간의 신앙과 이를 서로 불도의 길로 안내하고 있는 모습은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수행에 방해되는 여성이미지와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24) 텍스트 2권, p162

25) 20卷 42話 여자라도 신선이 되어 이와 같이 하늘을 날 수 있다(女也ト云ヘドモ仙ニ成リテ、空ヲ飛ブ事、如此シ)

이 불도의 안내자로서의 이미지가 독특한 모자신앙의 예로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3. 『곤자쿠』의 두가지 상반된 여성이미지

3.1 불도의 안내자

불도의 안내자로서 이미지는 15권 39화, 17권의 33화가 있다. 이야기가 길어 내용을 요약할 하면 다음과 같다. 주로 편지를 주고 받은 문장이다.

39화의 源信僧都是 大和国葛下郡의 사람이다. 어렸을 무렵, 比叡山에 올라 학문을 하여 훌륭한 학승이 되었으므로, 三条太后宮主催의 法華八講에 초청받았다. 이 팔강이 끝난 후, 하사받은 수많은 헌상물을 조금 나누어 大和国에 있는 어머니 곁에 “이것은 后宮님의 8강에 참석하셔서 받은 물건입니다. 처음 받은 것이므로 우선, 보시는 것입니다”라고 하여 보냈더니, 어머니의 답장에, “어미가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딸은 많이 있지만 아들은 당신 한사람입니다. 그것을 성인식(元服)도 올리지 않고 比叡山에 올려보낸 이상, 학문을 해서 훌륭하게 재지를 익혀 多武峰의 성인과 같이 존경스런 스님이 되어서 어미의 후세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명한 스님이 되어서 화려하게 여기저기로 얼굴을 내미는 것은 기대에 반한 것입니다. 나도 늙었고 살아있는 동안에 당신이 성인이 되시는 것을 이 눈으로 보고나서 안심하고 죽고 싶습니다”고 아들이 그저 학승으로 만족하는데 그치지 말라고 타이른다. 그러자 아들은 “어머님이 성인이 되었구나. 이제 만나보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방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한 결코 比叡山에서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해도 어머님은 정말 훌륭하신 지도자이시군요”라고 이렇게 써서 보내자 그 답장에, “겨우 안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명도에 갈수 있겠습니다. 거듭거듭 기쁩니다. 결코 수행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라고 했다. 그리하여 훌륭한 스님이 되어 어머니인 여승의 마지막 임종시에 염불을 외우며 왕생을 도와주고 있다.

위의 내용에서 보면 시종일관 어머니는 아들에게 존댓말을 쓰고 있다. 이는 학승이 되어 존경하는 스님이 되었으므로 예를 받치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는 집에서 여승으로 수행을 쌓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장의 여승의 활동과는 달리 여기 源信僧都는 比叡山에 올라 학승의 과정을 밟고 궁정의 귀족과 황족의 종교적 스승으로 화려하게 활동하고 있다. 여승에게는 이미 첫단계부터 막힌 이야기였다. 이런 학승을 원한 것이 아닌 어머니는 훌륭한 성인으로 인도하고 있다.

17권 33화 法輪寺의 虚空藏菩薩이 여인으로 변화하여 색욕을 방편으로 젊은 승을 수행을 성취시킨 이야기이다. 이는 장편으로 문학적 향기가 높다고 여겨지고 있는 이야기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比叡山에 젊은 승이 있었다. 출가한 이래 학문에 뜻을 있었지만 노는데 정신이 팔려 학문을 게을리 하고 법화경만을 배웠다. 학문을 하고자 하는 뜻은 있었기에 항상 法輪寺의 虚空藏菩薩에게 기원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름다운 여주인의 집에 머물고 그녀에게 반한 젊은 중은 그녀의 지시대로 움직인다. 우선, 比叡山에 돌아가 경전을 보지 않고 외우십시오. 그 때 원하는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정식 학승이 되어 주셔서 귀족, 황실의 학승으로 출세하시길 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 삼년만에 돌아온 학승에게 법화경의 서품으로 시작해 여러가지의 질문을 던져 공부를 테스트한다. 그리고 합격을 알리고 부부로 되기로 하고 같이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억새무성한 벌판이고 그날 밤 꿈에 허공장보살의 변신임을 알리고 있다.

어머니로서 아들을 불도로 안내하고 그 길을 걷는데 채찍을 가하고 더없이 훌륭한 스승의 이미지였다. 또한이는 젊은 여성의 이미지로 색욕을 무기로 젊은 학승을 학문의 길로 인도하여 훌륭한 스님으로 완성시키고 있다.

3.2 불도 수행의 방해자

『곤자쿠』의 왕생담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 여성은 주로 수행을 방해하는 이미지로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 뒷부분에서 편자는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1권 24화의 이야기로 다년간 수행에 의해 막 선인이 되어 하늘을 날아가던 久米가 여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추락하여 그간의 수행이 무산된다는 이야기이다.

後ニ、久米モ仙ニ成テ、空ニ昇テ飛テ間、吉野河ノ辺ニ、若キ女衣ヲ洗テ立テ

り。衣ヲ洗フトテ、女ノ月巾脛マデ衣ヲ搔上タルニ、月巾ノ白カリケル見テ、久米心穢レテ其女ノ前ニ落ヌ。26)

여자는 아무런 유혹하려는 의도도 행동도 취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방해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

다음은 여자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그 결과 애욕이나 집착의 화신으로서 결국 뱀으로 태어나는 이야기가 13권 43화, 14권 3화, 14권 4화에 나오고 있다. 그 가운데 14권 3화의 紀伊国道成寺僧写法花救蛇語의 이야기는 대표적이다.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熊野참예를 하는 젊은 중을 연모한 紀伊국의 여인이 젊은 중을 유혹하지만 젊은 중은 거짓약속을 하고 모면한다. 그 위약에 분노한 여자는 큰 뱀으로 화하여 도성사의 큰 종으로 도망쳐 숨은 젊은 중을 끝까지 쫓아간다. 그 큰 종을 휘감아 불태워죽인다. 그리하여 둘다 뱀으로 화하여 道成寺의 노승에게 의뢰하여 범화경의 서사공양을 받고 도솔천에 전행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편자를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자의 악한 마음이 강한 것은 실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런 연유로 여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부처는 강하게 경계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아서 여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피해야만 한다.

(女人ノ惡心ノ猛キ事既ニ如此シ。此ニ依テ、女ニ近付ク事ヲ仏強ニ誡メ給フ。)27)

이런 여성의 이미지가 작용해서 그런지 편자는 11권 26화에서, 당시 여인결계를 말하고 있다. 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수행으로 이름난 명산에는 여성의 접근이 금지되는 것을 말한다.

여자는 이 산(比叡山)에 오를 수 없다. 이 절은 延曆寺라 이름지어졌다
(女ハ、此山ニ登ル事無シ。延曆寺ト名タリ。)28)

26) 텍스트 1권, p164

27) 텍스트 1권, p487

28) 텍스트 1권, p173

또 26화의 마지막 부분에 편자는

만약 여자에게 조금이라도 접촉한 사람은 영구히 이것을 예배드릴 수 없다 라고 전하여져 오는 것이다.

(若シ女ニ少モヌル人ハ、永ク是ヲ礼シ奉ル事無シトナム語り伝ヘタルトヤ。)29)

여자에게 의도가 있건 없건 존재 자체가 이미 애욕의 대상이고 죄가 됨으로 가까 이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는 원죄에 가까운 이야기이다. 이런 여자를 구제해야 할 대상으로서 보고 있고 교육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여자에게 희망을 주는 요소로서 왕생담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자라도 결혼해도 가능하다고 불교를 믿어서 왕생하라도 하는 것이다.

4. 결론

15권 여인왕생담을 통하여 여인들이 어떠한 행업을 닦았는지 어떻게 노력하면 왕생이 가능하고 그 왕생의 양상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전체 왕생담의 편수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비율이지만 12화를 중심으로 여성왕생인을 살펴보았다.

주로 여성은 귀족이나 부유한 계층 출신으로 절과 관련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조용히 나름의 수행을 하고 있었다. 그 수행방법은 주로 아미타염불이고 기타 법화경 독송이나 선근수행을 하는 겸수 내지 잡수의 양태를 띠고 있었다.

이런 수행을 위해서는 시간과 돈의 여유가 필요했기에 당시 생계를 위해 일해야만 하는 하층민 여성에게는 아직도 요원한 일로서 여겨져 하층민 여성의 예는 한화도 없었다. 주로 귀족부유층의 왕생담위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인왕생담에서 특이한 점은 모자간이면서 어머니가 출가하여 여승으로서 아들을 출가시키고 또 그 아들을 성인으로 인도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불도예의 안내자로서의 이미지이다. 이는 다른 부분에서 여성을 불도의 방해자로 보고 있는 것과는 대조

29) 텍스트 1권, p174

적인 이미지이다. 모성의 위대함의 또다른 예로 안내자의 이미지를 추가시키고 있다. 여성은 악한 존재이지만 모성은 위대하다는 아이러니를 배태하고 있다.

편자는 여인왕생담에서 여성이라도 결혼했다라도 왕생할 수 있다고 극히 작은 예이지만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한편으로 왕생담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 여성은 존재 자체가 이미 구제의 대상이고 남자수행자에게는 방해가 되는 존재라 여기고 남자들에게는 가까이 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치는 한편 여자에게는 불교를 믿어 죄를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참고 문헌

- 田中貴子(1991) 「古典文学にみる 竜女成仏」 「国文学解釈と鑑賞」 720号, 至文堂
中村元外 3人(1989) 岩波仏教辞典、岩波書店
馬淵和夫等 校注・訳(1980) 『今昔物語集』, 日本古典文学全集、小学館